孤雲寺 建築의 集合類型 硏究[1)]

金 奉 烈
(정회원, 울산대학교 부교수)

1. 硏究의 目的과 方法

한국의 사찰건축은 단위로서의 건물과 건물이 모여 하나의 群을 형성해야 비로소 완결된 형태와 공간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계획과 외부공간의 문제가 사찰건축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찰들이 일관된 "계획"에 의해 조영된 것은 아니며, 그때 그때 조건에 맞추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해 왔기 때문에 배치계획이란 개념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외부의 "공간"을 이루기 위해 중세 사찰의 건물들이 영건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해석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 한채 한채가 전체 사찰을 이루기 위해 모여지는 과정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集合性"의 개념을 적용하기로 한다. 집합이란 부분과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며 전체 속에서 존재하는 부분들 간의 관계와 질서를 포괄한다. 集合의 次元은 건물이 모여서 이루는 建物群 뿐 아니라, 건물군들이 이루는 建物群集, 그리고 그들과 地形과의 관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집합의 과정에서 배경이 되는 구성의 원리와 개념을 集合의 理論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북 의성에 소재하는 孤雲寺를 대상으로 그 집합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가지 기초작업을 선행했다.

첫째로 고운사 건축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시간적 집합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였다. 고운사의 事蹟에 관계된 문헌기록으로는 10여종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있지는 못하다. 1차사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하여 건축 조영의 연대기를 작성했다.

둘째는 건축 현황에 대한 물리적인 조사 작업이다. 고운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전혀없고, 개략적인 인문조사가 시행된 정도이다.[2)] 전체 사역에 대한 지형과 건물의 측량을 통해 여러가지 실측도들을 작성함으로써 1차적인 도면자료를 작성했다.[3)]

---

1) 이 논문은 1994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대구대학교 박물관, 義城郡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 1987, 163-180쪽. 연혁과 개별건물의 간략한 조사가 수록되었으며, 가람배치도가 약측으로 조사되었다.

3) 실측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조사는 1988년 7월 배치와 건물에 대한 약측 예비조사가 시행되었다. 2차조사는 1994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에 걸쳐 1/200 배치의 평판측량, 1/50 축척의

문헌 분석자료와 실측자료에 근거하여 地理的 次元, 群集의 次元, 建物群의 次元에 대해 集合的 性格을 분석하였다. 분석과 아울러 고운사 건축에 작용하였던 集合의 理論을 추론하여,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써 한국불교건축의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文獻史料의 考察

2-1. 文獻史料 現況

고운사는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동에 소재한다. 29채의 건물이 현존하며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 본사로서 의성 안동 봉화 영주 영양 5개 시군 57개 사찰을 관할하고 있다. 사찰내에 전하는 문헌사료는 발견할 수 없었고, 두개의 事蹟碑가 현존하여 부분적인 연혁을 알 수 있다.

1729년에 조성된 <孤雲寺事蹟碑(4)>는 靑泉 申維翰이 지은 것으로 현존하는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4] 여기에는 비교적 자세한 연혁이 수록되었다. 이 절을 이룬 四尊者로서 義湘 雲住 天祐 道詵대사를 들었고, 聞韶縣에는 四雲寺가 있다하여 西 雲嵐寺, 北 孤雲寺, 西北 住雲寺, 南 雲谷寺를 명시했다. 1918년의 <孤雲寺事蹟碑(2)>는 일제에 의해 전국 30본산의 하나로 지정된 후에 吳致昇에 의해 쓰여졌다.[5] 이외에도 의성군의 옛기록인 <聞韶邑志(5)>에 고운사의 사적 일부가 실려있다.[6] 여기에는 고운사의 창건과 현황, 그리고 지형의 풍수적 해석이 실려있어 주목된다. 일제때 편찬된 <朝鮮寺刹史料-上>에는 간략한 <騰雲山孤雲寺事蹟(1)>이 실려있고, 사찰 입구에 있는 안내판(6)에도 간략한 사적이 쓰여져 있다. 안내판에는 정확한 고증이 없는 속설들도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이 절을 승군을 관장하는 전방기지로 활용하였다"는 기록은 다른 사적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다.

문헌이나 비석 외에도 우화루 안에는 단편적인 영조활동 내용을 담은 11개의 記文 현판들이 걸려있다. 그 가운데 1858년작 <牟尼極樂兩殿佛像改金記(7)>, 1832년작으로 추정되는 <冥府殿獻納記(8)>, 1880년 <先師涵弘和尙獻上記(9)>, 1842년으로 추정되는 <孤雲寺重創記(10)>, 1887년 <孤雲寺重修記(11)> 등에서 사적의 보완적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先師涵弘和尙獻上記>에는 당시 고운사 소유의 토지가 등재되어 이채롭다. 이 외에도 1858년의 <佛像改金記>, 최근의 <孤雲寺重修및 佛像改金記文>, 그리고 涵弘禪師와 權魯郁, 柳道禧, 趙伯承 등의 詩文이 걸려 있다.

2-2. 沿革의 再構成

앞에서 소개한 11종의 사료를 서로 비교 검증하여 연대순으로 재구성하고 최근의 변화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속의 숫자는 출전사료의 번호임)

건물 평면, 입면, 단면 실측을 실행했다. 실측작업에는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과 학부생들이 참여했다. 고운사는 1992년 계곡을 메우고 대웅전을 신축함으로써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차예비조사 때의 자료는 복원적 고찰을 위해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4) 申維翰은 당시 平海郡守로서 밀양 출신. 경상도에서는 당대의 대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다. 권상노가 편찬한 <韓國寺刹全書-上>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79-81쪽)에도 같은 내용을 <靑泉集>에서 발췌되어 수록되었다.

5) 한종만編, 韓國近代 民衆佛敎의 理念과 展開, 한길사, 1983, 363쪽. 조선총독부는 1911년 7개조의 사찰령과 8개조의 시행규칙을 반포하고 전국 사찰을 30본산체제로 재편하였다. 사찰령 제정의 근본적인 의도는 조선사찰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전국의 사찰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조선불교를 일본불교에 종속시키려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시기에 전국본산사찰의 사적기가 대부분 다시 쓰여졌으며, 그 말미에 사찰의 재산정도를 밝히고 있다.

6) 권상노, 앞의 책, 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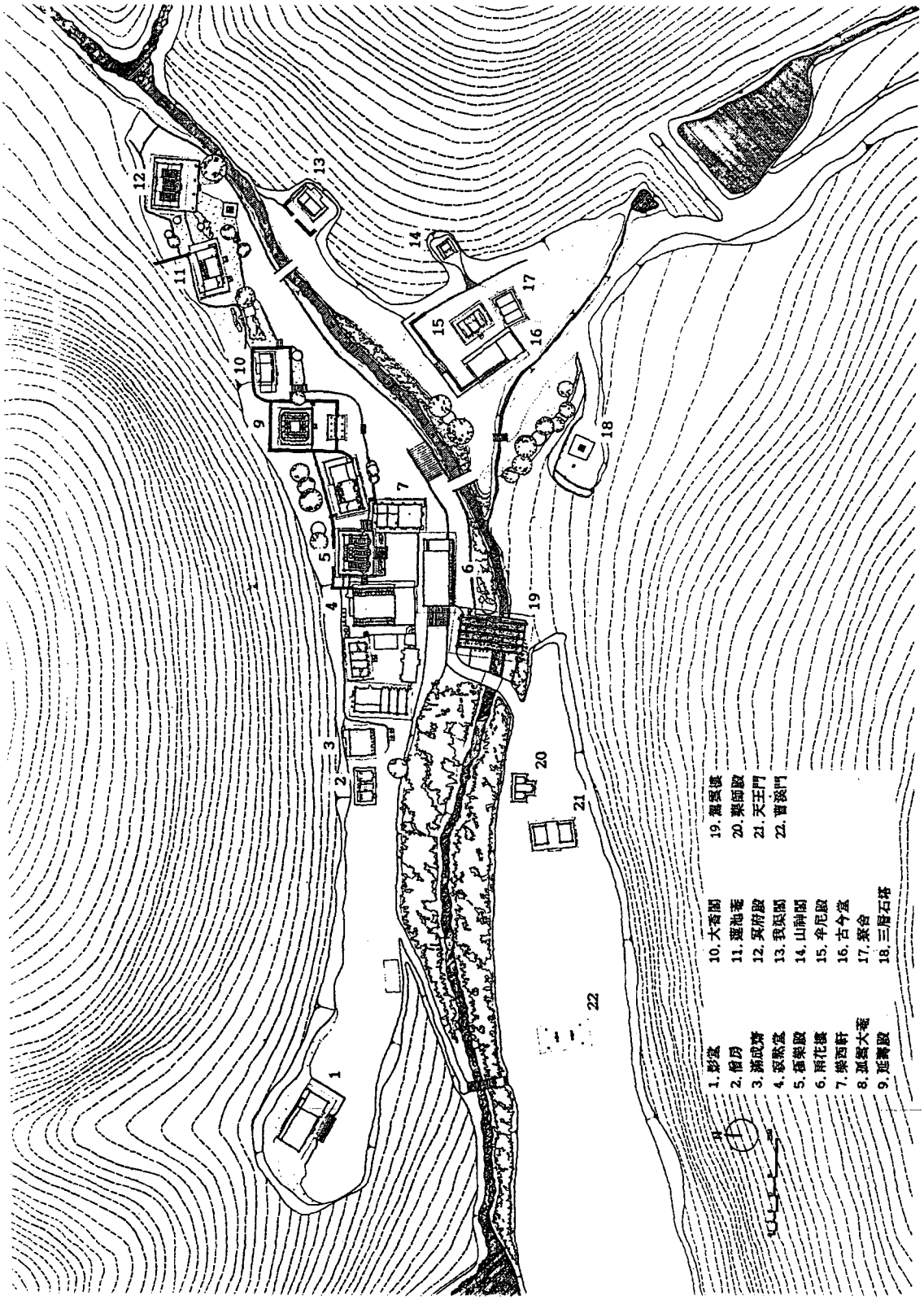


그림 1. 고운사 복원배치도 (1987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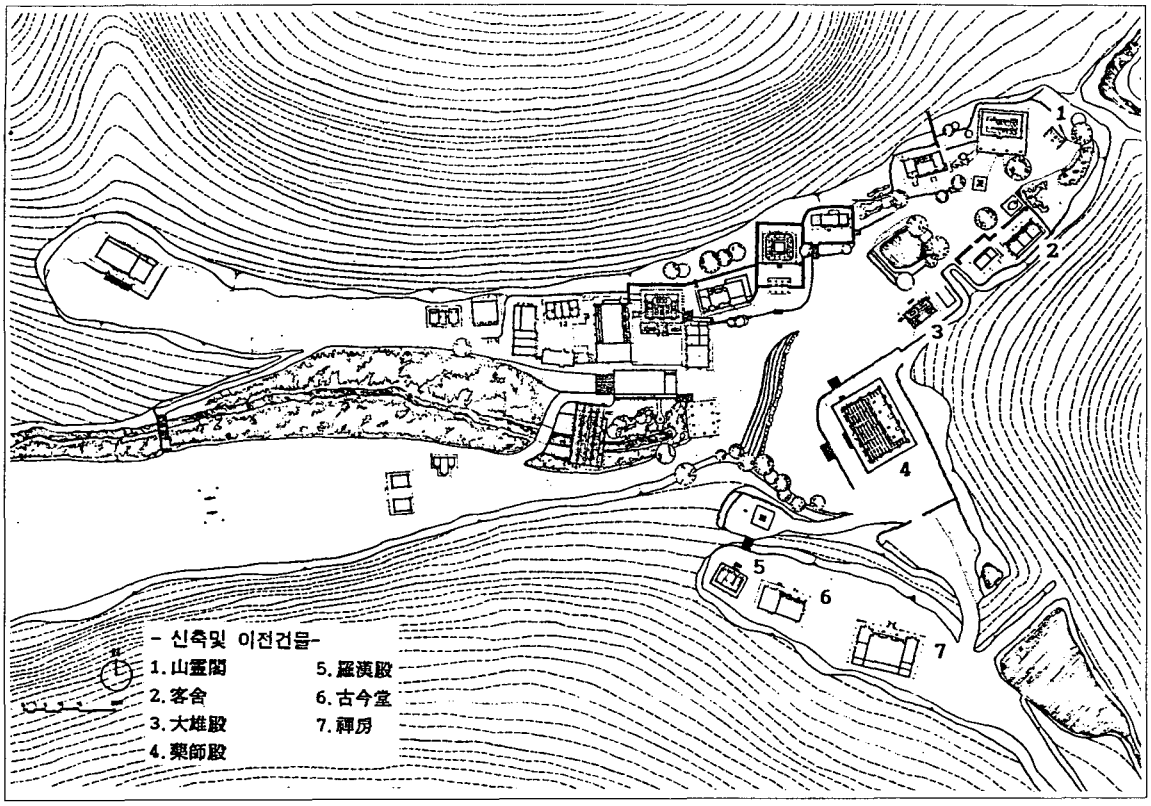


그림 2. 고운사 배치도 (1994년)

676 義湘국사 등운산 내왕 (2)

681 義湘조사 창건, 高雲寺라 명명 (6,3) / 신라때 義湘이 머물며 창건했다 (1)

875-886 先覺국사가 약사석불과 5층석탑 조성했다 (2)

880대 후에 崔致遠이 如智 如事 두 대사와 鴛雲樓 羽化樓 건립하고 孤雲寺로 개명 (6,2,3)
文昌侯 崔致遠이 羽化樓, 在澗樓, 上日樓, 鴛雲樓를 창건했다 (1)

948 雲住 照通화상 중창 (2) / 사찰 중창 (6,3)

950경 天祐조사가 法堂 2처와 房舍 11처의 규모로 새롭게 창건 (1)
또 道詵법사가 약사석불과 다층석탑을 靈境樓 앞에 조성 (1)

1018 天祐 주지가 5殿 10房舍로 중창 (2,3)
대웅전 약사전 극락전 관음전 문수전 / 적묵당 설선당 동별실 서별실 금당 백련당 會雲堂 淸風堂 養老堂 白蓮菴(2)

1668 가운루 중수 : 克成, 勝默, 德宗(1,2,4)
천왕전 신축 : 處淳(1,2,4)
봉황문 신축 : 雲行(1,2,4)
影舍를 만들고 영정을 봉안했다 (4)

1670 시왕전 건설 : 崇海 妙善 性峻 崇學 熙悅 (1) / 명부전 건립 (2)
我渠閣 건설 : 宗憲 雪輝 (1)
대사들의 영정을 아거각에 보관 (2)

1683 팔상전 건립 : 灌憲 印岑 善初(2)

1695 (설)선당 중수 : 幸玉 / 적묵당 수리 : 泰運(1,2)
東上室 동별실(2) 수리 : 禪特 性淡 / 西上室 서별실(2) 수리 : 性觀 (1)
淸風堂 文殊殿 養老堂 수리 (1,2,4)
백련당 수리 : 勝律 義岑 / 응향각 수리 : 勝卞(2,4)
사찰 중수 (3)
미타 대세지상은 만들어 관음상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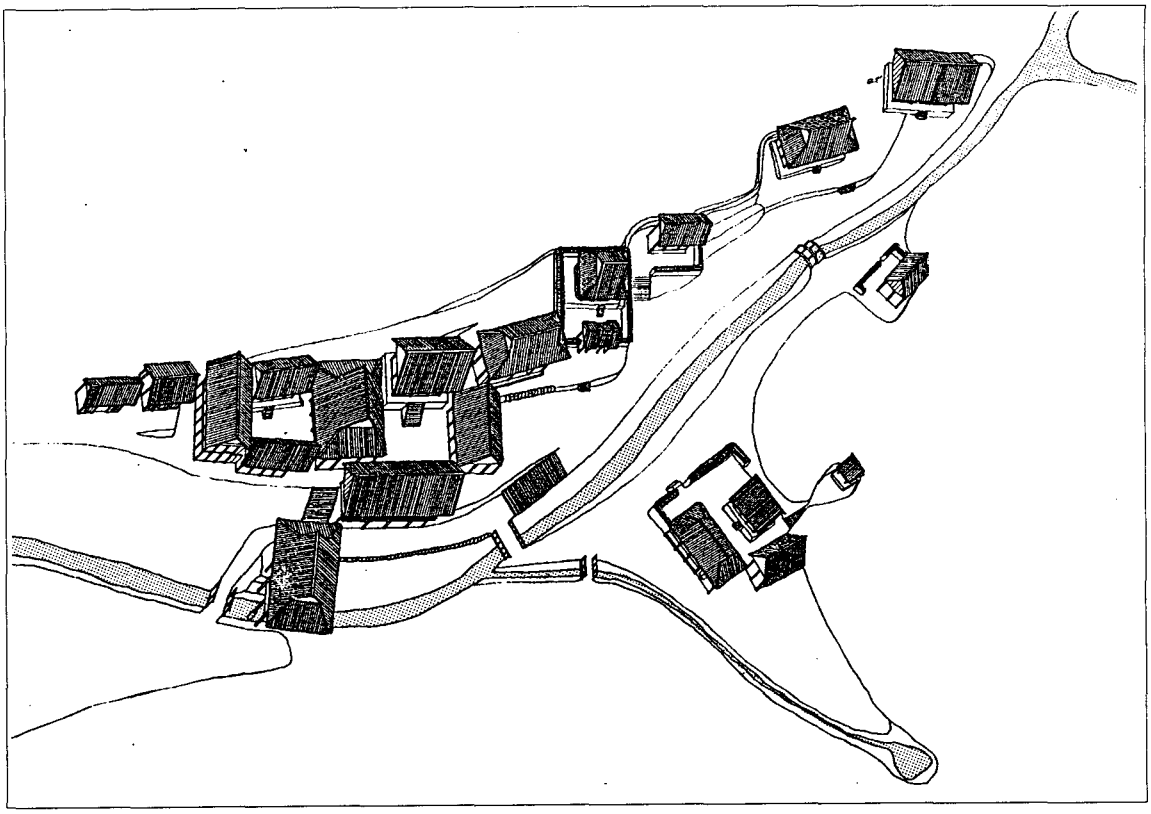


그림 3. 고운사 OBLIQUE

3존불 봉안 (4)
개울을 건너면 대웅전 금당 신구관음전이 있다(4)
백련당 서쪽에 鳳棲菴이 그 남쪽에 운수암이 있다(4)

1696 적묵당 서별실 중건 : 文察(1)
1706 사리탑 건립 (2)
1724 雲水菴 건립 : 法存 智勳 (2)
3불전, 11요사, 2암자의 규모 (5)
극락전에는 관음-미타-세지, 모니전에는 석가불, 명부전에는 지장대성 + 시대왕을 봉안하고 그 봉향각으로 지장암을 설치 /11요사는 동별당 (명부전 요사와 대향각 사이), 서별당, 설선당(낙서헌?), 적묵당(현 대방), 관음전, 금당(모니전의 고금당), 백련당, 청풍당, 문수전(현 약사전 터), 양로당(열반실?), 회운당. /북에 白蓮社(庵, 신암터?)가 남에 雲水庵(영각터)이 있다.

1744 御帖을 연수전에 봉안 (6)
봉안각을 건립하고 불단용 그릇, 보물그릇, 어첩 등을 봉안 (2)
1749 耆老所 奉安閣을 세우고 空名帖을 봉안 (1)
1754 칙령 받들어 연수전 세움(1)
1797 운수암 백련암 중수 : 義嚴 (2)
1803 서별당 적묵당 중수 : 현령 宋克輔의 명으로(2)
1831? 雲之, 白蓮丈室 (8)
1835 대웅전 금당 관음전 백련당이 피해입음 / 대웅전 금당 중건 : 脫松 (1)
백련당 대웅전 금당 관음전 중창 : 현령 洪鍾浩의 명으로 (2)
화재 후 改創(3)
1842? 연지당을 지장전의 香閣으로 새롭게 개조하고 법당 누각의 부재를 수리 (10)
1858 대법당의 기존 관음상을 개금 / 雲水庵의 모니불을 새로 만들고 개금 (7)

1868 後舍 날개채를 개조, 禹儀堂 건립 (2)
1884 금당 수리, 산령각 건립(2)
1885 金堂 중수 (古今堂을 뜻하는 듯) : 大雲 (1)
1887 4채의 法宇가 있다 (11) : 모니전, 극락전, 팔상전, 명부전
1899 동상실 철거한 재목으로 적묵당 중건하여, 금당이 2방으로 축소 : 抱雲 惠隱 (1,2)
동별실 蓮池菴 적묵당 천왕전 수리(2) / 중수(3)
1901 海雲樓 창건 (2)
1902 연수전 재창하고 영조 때의 옛 고사를 붕안(2)
1906 종무원 승격 / 14군 관할(2)
1918 涵弘 水月의 신도비를 세웠다 /
대웅전 약사전 극락전 명부전 천왕전 금당 적묵당 설선당(낙서헌) 동별실(대향각)
연지암 운수암 백련당 우화루 가운루 해운루(대웅전 누각?) 조계문 열반실 등 총 366칸과 연수전이 있다 (2)
1930대 禪院, 念佛院, 講院, 本山事務所 설치 (1)
1960대 사찰 입구에 유원지를 꾸미기 위해 저수지 (고운못)을 조성
1992 모니전 영역을 해체하고 대규모 대웅전을 신축 /
계곡을 메워 평지로 만들고 禪房 개설

3. 建築 造營史

기록에 남아있는 고운사의 연혁을 일관해 보면, 구성상의 변화가 몇단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創建 (681) 義湘 창건, 崔致遠관련설
2重創 (948) 雲住 중창
3重創 (1018) 天佑 중창
3殿制 (1670) 冥府殿 창건
願堂설치(1754) 延壽殿 창건
改創 (1836) 牟尼殿 중창
改創 (1992) 大雄殿 신축

3-1. 創建期 (681-1018)의 造營

창건과 두차례의 중창에 관한 기록 중 신빙성이 있는 것은 1018년 천우대사의 3중창 정도라고 평가된다.[7] 우선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기록은 같은 지역권인 영주의 부석사가 의상이 창건한 화엄종의 종찰임에 편승해 창건의 년대를 올려잡은 것이라는 추정이다. 전국에 의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오는 사찰은 수백이 넘는데, 모두 고증을 할 만한 기록이 없다. 심지어 신라대의 華嚴十刹 가운데서도 부석사만이 의상 당시의 창건이고 나머지는 제자들에 의해 후대에 창건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875년경 先覺國師가 약사여래석조상과 5층석탑을 조성하였다는 기록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선각국사는 道詵 (827-898)의 시호이지만, 사찰의 격을 높이기 위해 道詵 연관설을 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8] 현재 고운사에 남아있는 유물은 석가여래석조좌상과 3층석탑 뿐이다. 이들의 조성시기는 양식으로 보아 대략 9세기후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약사석불과 5층석탑을 조성했다"는 기록과는[9]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최치원이 이 절에 여러 누각을 세웠다는 기록과도 상치되는 점이 있다.

9세기 후반에 文昌候 崔致遠(857-?)이 如智 如事 두 대사와 이 곳에 와서 駕虛樓와 羽化樓를

7) 최완수, 명찰순례-3, 대원사, 1993, 425쪽.
8) 사학계에서는 일찌기 道詵의 실존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李能和와 今西龍에 따르면, 신라말 왕건을 도와 전라남도 일대를 장악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가지산파 逈微선사의 시호 역시 선각대사여서, 도선은 형미선사의 행적을 신화화한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완수, 앞의 책, 424쪽 참조.)
9) 吳致昇, <孤雲寺事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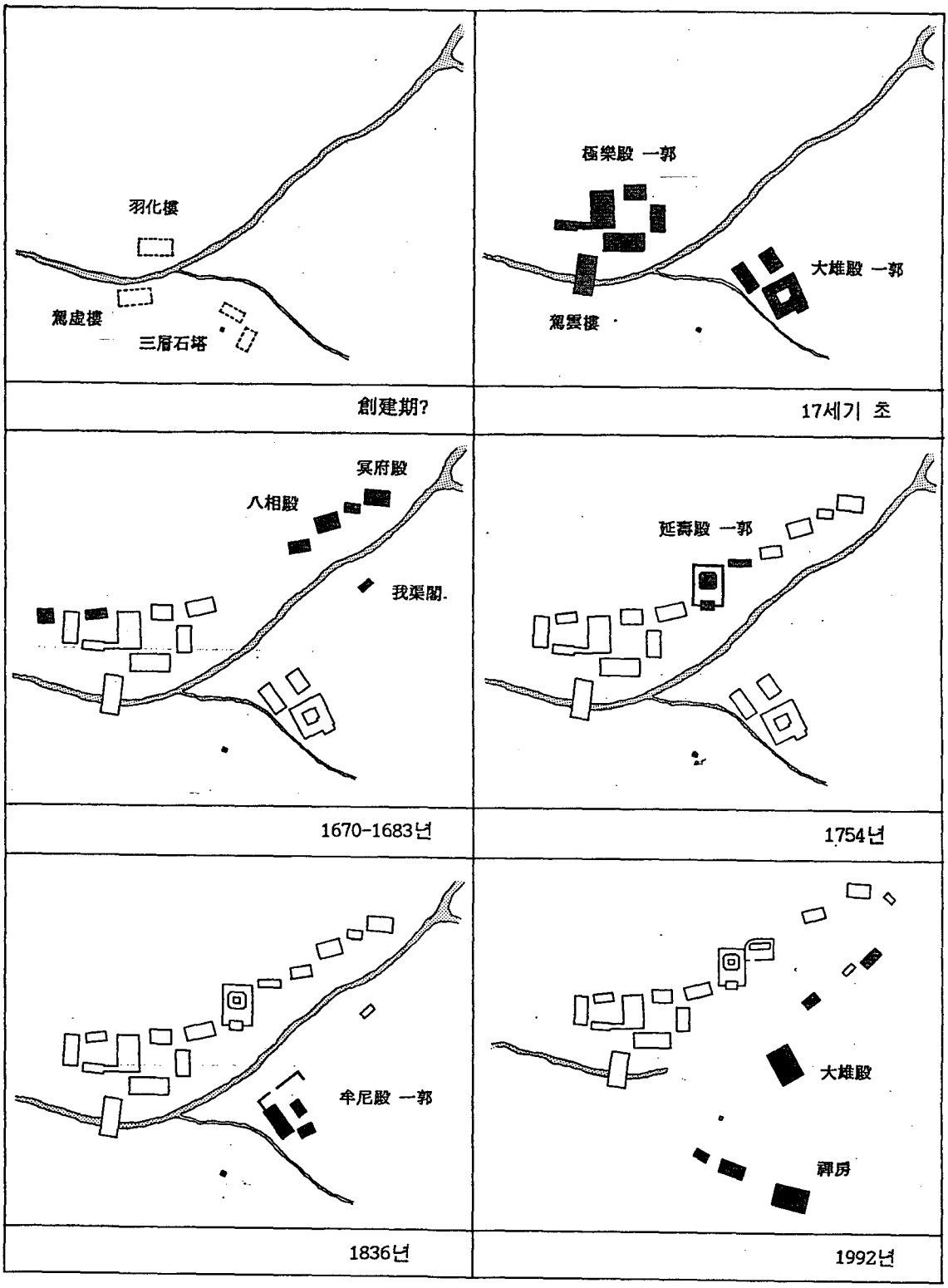

羽化樓
駕虛樓
三層石塔
創建期?
極樂殿 一郭
大雄殿 一郭
觀雲樓
17세기 초
冥府殿
八相殿
我渠閣.
1670-1683년
延壽殿 一郭
1754년
牟尼殿 一郭
1836년
大雄殿
禪房
1992년

그림 4. 고운사 변천도

건립하였고, 이때부터 최치원의 호를 좇아서 孤雲寺라 칭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은 道敎的 이미지로 가득차 있어 당시 고운사의 성격을 암시하는 바가 많다. 특히 구름과 관련되는 명칭들이 주목된다. 배경이 되는 騰雲山, 최치원의 호 孤雲, 절의 명칭, 누각의 명칭 駕雲樓 (가허루의 후신)와 羽化樓[10] 등. 또한 다른 기록에는 가허 우화 두 누각 외에도 在潤樓 上日樓 까지 총 4개의 누각을 세웠다고 되어있다.[11] 또 최치원과 함께 누각을 세웠다는 如智 如事 두 인물은 승려의 이름을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뜻 그대로 푼다면 "앎과 같이" "행함과 같이"라고 되어 누각을 세울 당시 최치원의 심정을 가르킨 용어가 기록을 전수하면서 승려의 이름으로 탈바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최치원 이전에 이미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가 이곳에 와서 2-4개의 누각을 추가로 세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교적 경향이 짙은 이 지역에 와서 도교 혹은 풍류도의 사원을 만들기 위해 누각들을 지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12] 그렇다면 신라하대의 이곳은 불교사찰이 아닌 도교 혹은 풍류도의 종교단지였을 가정도 가능하다.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950년경 雲住조사의 중창설과, 1018년 天佑대사의 중창설이다. 일설에 의하면 중창주인 천우는 송나라의 승려라 전하며, 이 시기는 고려 건국 후 1세기가 지나 사회가 안정되고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대규모 佛事가 진행되던 기간이어서 일견 신뢰할만한 사회적 조건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때 이미 대웅전 극락전 등 5殿과 적묵당 등 승방 11처를 개설했다는 기록은[13] 믿기 어렵다. 법당과 승방의 명칭이 조선후기의 명칭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찰내의 유구나 유물 가운데 고려초의 것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종합하면 신라말에 창건된 암자규모의 사찰이 후삼국시기에 폐사되었다가 고려 초에 다시 소규모 사찰로 개창됐다는 정도로 창건기의 연혁을 정리할 수 있다.

10) 도교적 내용의 羽化登仙을 뜻하는 이 누각의 명칭은 후에 불교적 내용의 雨花樓로 개명되었다.

3-2. 朝鮮中期의 造營 (-1670)

11세기 천우대사의 중창 이후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1668년 가운루 중수와 천왕전(문) 봉황문(현재 없음)의 신축 사실이다. 이 기록은 중요한 사적기 모두에 수록되어 신뢰할 만하다. 기록대로라면 가운루는 고려 이전에 창건되어 조선중기까지 유지되었다. 이 시기에 비로소 천왕전을 창건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사찰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가람구성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인 것은 1670년 十王殿 (冥府殿)의 건립과 1683년 八相殿의 건립이다. 명부전은 아직 남아있으며, 팔상전은 명부전 옆 현재의 연지암 자리라고 전한다. 또 시왕전과 같은 해 계곡 건너 我渠閣을 신축해 조사들의 영정을 모셨다. 이 세 건물의 영건기록은 본격적인 사찰의 확장을 의미하며, 세 건물이 개울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독립된 영역을 형성했음을 암시한다. 이때부터 이전에 있었던 대웅전 극락전과 함께 三殿체제로[14] 사찰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사찰의 확장과 더불어 기존 건물들의 수리가 활발하였다. 사명대사의 승군기지설에 암시되어 있는 바대로, 임진왜란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이때는 국가에서도 사찰의 확장과 불교 진흥을 묵인하던 시점이다. 사찰 내의 거의 모든 건물들이 중수 수리되었으며, 특히 1695년 극락전에 아미타불- 대세지보살 - 관세음보살상을 새롭게 조성하여 안치했다는 기록은 사찰정비의 상징적인 사실로 보인다.[15]

11) 권상노, 앞의 책, 478쪽.

12) 최치원은 고대에 전승되었던 민간신앙 (단군신앙, 신선사상, 풍류도 등)을 종합하고 계승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운사에 얽힌 최치원의 행적은 <崔致遠傳>에 근거하고 있다. 이 책에는 최치원이 의성군에 있는 氷山에 나들이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러면 고운사에도 당연히 왔을 것이 아닌가 유추했다고 보인다. (최완수, 앞의 책, 424쪽.)

13) 吳致昇, <孤雲寺事蹟碑>.

14) 申雍翰, 孤雲寺事蹟碑.

15) 申雍翰의 사적기에 의하면, 天海대사가 꿈에 나

사찰의 확장은 외곽으로 뻗어나가, 1724년 雲水菴을 건립하여 기존의 白蓮庵과 함께 2암자 체제를 구축하였다. 두 암자는 일주문 밖, 현재의 影堂자리와 계곡 건너편 산기슭으로 추정된다.

3-3. 願堂寺刹의 經營 (1744-1910)

또 한번의 획기적인 변화는 1744년 延壽殿을 건립하고 영조대왕의 御帖을 봉안하고 부터이다. 조선조 전반에 걸쳐 시행된 抑佛策 아래에서도 궁중 안의 內願堂사찰, 왕릉을 수호하고 명복을 빌기 위한 陵寢守護사찰, 또는 國家願刹, 先王眞影 奉安寺刹, 胎室守護寺刹, 그리고 山城 따위의 보수와 방어를 담당했던 軍泡寺 등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경영되어 왔다.[16] 그러나 이들은 수도권과 극소수의 지방사찰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사찰들은 유림들의 횡포와 국가적 부역, 중과세에 시달려 사찰의 생존자체를 위협받았다. 한가지 생존의 유력한 방법은 왕실의 安寧求福 또는 王子生産祝願을 통해 왕실과 연관을 맺어 願堂寺刹로 지정받는 일이었다. 일단 王室願堂이 되면 일체의 노역과 세금부담에서 벗어남은 물론 사찰재정을 보조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17]

원당 설치의 유행은 英祖시대에 매우 활발하여 乾鳳寺에 國齋를 위한 御室閣을 건립한 것을[18] 필두로 松廣寺 毓祥宮願堂, 歸州寺 願堂 등이 설치되었다.[19] 1776년 국가는 願堂廢止令을 내리는 바, 그만큼 원당설치가 성행했음을 입증한다. 고운사의 경우 영조 년간에 일찌기 연수전을 건립하고 불단용 그릇, 보물그릇, 어첩 등을 봉안했고, 1749년에는 耆老所[20] 奉安閣을 세우고 드디어 空名帖[21]을 하사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왕실원당이 되었다. 그후의 기록은 발견할 수 없고, 1902년 다시 연수전을 再創하고 영조조의 옛고사를 봉안하였다 하니 지금의 연수전 건물은 이 당시의 것이다.

願堂설치의 효과는 지대하여, 1803년 서별당과 적묵당을 중수하는데 縣令 宋克輔가 직접 명을 내리고 공사비를 지원했을 정도이다.[22] 또 1835년 개울 건너 대웅전 일곽이 화재로 소실되자 곧 縣令 洪鍾浩가 재건을 지휘하였다. 사찰 입구 옛 약사전 옆에는 철로 주조한 <縣令 李侯容準永世不忘碑>까지 안치된 점으로 보아,[23] 지방관과 고운사 측의 밀착관계는 조선조 말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당이 설치된 18세기 중반부터 고운사는 일대의 중심사찰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영주 부석사가 쇠퇴함에 따라 의성 영주 안동 등 인근 14개郡의 사찰을 관할하는 대찰이 되어 한때 366칸의 규모를 자랑했다고 전한다.[24]

3-4. 牟尼殿 一郭의 再建 (1835)과 最近의 變化 (1992)

타난 관세음상을 송도의 대흥산에서 발견하여 모셔왔고, 이에 맞추어 아미타-대세지불상을 새로 조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음상은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설도 싣고 있다. 1858년의 <牟尼極樂兩殿佛像改金記>에는 이것이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1695년의 사실이라 다시 강조하고 있다. 고려 초 중창주인 천우가 송나라의 승려이고, 관음상이 중국제라는 기록은 최치원의 도교관련설과 함께 고운사의 독특한 이미지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16) 황선명, 朝鮮朝宗敎社會史硏究, 일지사, 1985, 139-141쪽.

17) 안계복, 韓國佛敎史硏究, 동화출판사, 1982, 277쪽.

18) 乾鳳寺本末寺誌, <金剛山乾鳳寺事蹟>, 30쪽.

19) 서치상, 朝鮮王朝 願堂寺刹의 造營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93쪽.

20) 耆老所란 정3품 이상의 당상관 역임자 가운데 70세 이상된 자들이 모이는 일종의 元老院으로 국왕도 가입할 수 있는 으뜸 서열의 기관.

21) 空名帖은 왕실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國債. 공명첩을 지방관부에 보내면 지방관은 의무적으로 적절한 금액에 매입해야 했다.

22) 吳致昇, <孤雲寺事蹟碑>.

23) 대구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180쪽. 이 鐵碑는 부식이 심하여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崇禎..."의 년호가 희미하게 남아 조선후기의 것으로 추정한다.

24) 吳致昇, <孤雲寺事蹟碑>.

1835년 대웅전 금당 관음전 백련당이 화재로 전소되고, 같은 해 곧 이들 전각의 중건이 시작된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개울 건너 대웅전 일곽은 이미 존재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화재 후 改創하였다"는[25] 표현으로 보아 중건된 대웅전 일곽의 모습은 예전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기록에는 大雄殿의 명칭이 보이지 않고 牟尼殿으로 나타나, 중건하면서 건물의 격을 축소하여 牟尼殿으로 개칭한 것이 확실하다.[26][27] 중건된 모니전 일곽은 牟尼殿과 金堂(古今堂), 觀音殿, 白蓮堂의 건물군으로 이루져왔으나, 1987년 조사 때 확인한 사실로는 모니전과 고금당, 그리고 간략한 요사채의 3동으로 이루어진 일곽이었다.

모니전 중건 이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은 크게 없었던 듯하며, 1901년 海雲樓 창건의 기록만 나타난다. 즉 고운사의 구성틀은 19세기 전반에 완성되어 큰 변화가 없이 부분적인 중수만이 행해졌으며, 일제기와 해방 이후 불교 침체기를 겪으면서 몇 건물들이 철거되는 정도였다.

19세기 말에는 쇠락하는 國運과 함께 고운사의 재정도 어려웠던 듯, 東上室을 철거하여 그 재목으로 적묵당을 중수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고운사의 재력은 탄탄한 편이었다. 당시 고운사의 佛糧畓은 의성군 구산면 마평에 1814負, 후평에 3199負, 점곡면 신현에 186負를 소유하고 있어,[28] 일대의 대지주로 군림하였다.

20세기 후반, 고운사 건축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960년대에 일주문 앞에 "고운못"이라는 저수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사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꾀했다. 불교 신도가 늘어나고 재정상태가 좋아진 1980년대에는 관리에 용이하도록 사찰을 남북으로 나누고 있던 가운루 뒤의 계곡을 메꾸었다.

1992년에는 기존의 모니전 일곽을 철거하고, 대규모의 새 대웅전을 신축하였다. 모니전 건물은 산 위로 옮겨져 나한전으로 바뀌었고, 고금당은 신축한 선방 옆으로 옮겨져 평범한 요사채로 바뀌었다. 또 계곡을 다시 메꿔 평지를 확장하고, 가운루 뒤 계곡 자리에는 범종각을 세워, 전체적인 질서가 일변하였다.

4. 集合의 次元과 類型

4-1. 地理와 敎理의 次元

고운사가 위치한 지형의 형국은 "主峰은 負壽峰, 安帶는 光明峰이니 .... 새재 이남의 名區라"하였고, 이를 도선대사는 芙蓉半開形의 형국이라 하여[29] 매우 좋은 입지로 평가하였다. 전체적인 지형은 뚜렷한 봉우리가 없고 연이은 連峰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을 거북산이라 부르며, 세개의 거북봉이 고운사 구성의 주요한 지형요소를 이룬다.

1988년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사찰은 계곡을 중심으로 남북 2개의 영역으로 크게 나뉜다. 北院은 극락전 일곽과 명부전 일곽, 그리고 그 사이의 연수전으로 이루어진다. 南院은 다시 작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모니전 일곽과 그 맞은 편 등성이의 석탑으로 이루어진다. 각 일곽의 중심건

25) <慶北五本山古今紀要>.

26) 현재 3층석탑 위에 있는 羅漢殿은 모니전을 이전한 것으로, 3칸의 간략한 구성의 매우 작은 법당이며, 주삼포구조의 수법은 19세기 중건시의 것이 확실하다.

27) 김봉렬,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硏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38쪽. 동일한 부처를 모신 전각이라도 사찰 내에서의 위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이 주불전일 때는 "대적광전"등의 명칭으로 불리우지만, 부불전이 되면 "비로전"이 된다. 고운사 대웅전이 모니전으로 개칭되었다는 사실은 이 법당의 위계가 주불전에서 부불전으로 격하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개울 건너의 극락전이 주불전의 기능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28) <先師涵弘和尙獻上記>, 1880.

29) <聞韶邑志>, 아울러 절 뒤의 암석에는 "此山局內有禁穴"이라는 각자가 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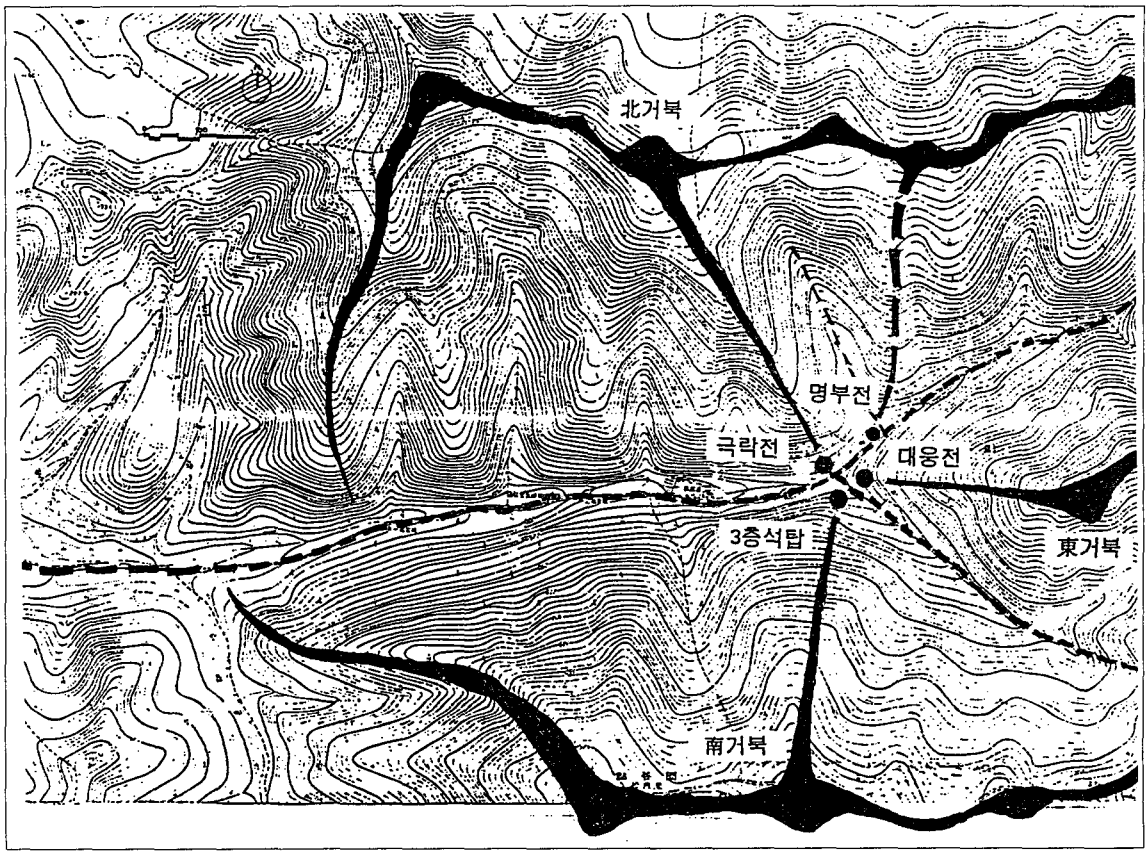


그림 5. 고운사 지형도

물들은 <그림-5>와 같이 3개의 주요 봉우리에서 흘러내린 지맥 위에 위치한다. 즉, 극락전은 북서 봉우리의 지맥에, 3층석탑은 남 봉우리의 지맥에, 모니전은 동 봉우리의 지맥 끝 점에 위치하여 3개의 중심을 이루어 이른바 "鼎足之勢"의 형상을 이루었다. 이 3개 영역의 배열은 적어도 16세기 이전에 구축되었고, 1018년 天佑의 重創 때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17세기 중반, 명부전과 팔상전으로 이루어지는 分院을 설치한 바, 명부전 역시 동북 봉우리의 작은 지맥의 끝에 입지하여 기존에 구축된 지형-건축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

고운사가 창건 당시에 어느 종파에 속했는지, 또는 어느 신앙을 위주로 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1835년 대웅전이 모니전으로 격하된 이후 부터는 극락전이 전체의 주불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미타 신앙형태가 중심되었을 것은 확실하다. 또한 현재 고운사가 명부전을 중심으로 한 地藏道場으로 특성화된 것도 "極樂 + 冥府" 신앙의 일환이다. 조선 초 태종 때 전국 88개의 資福寺를 지정할 때, 인근에 있는 조계종 소속의 의성군 氷山寺를 지정한 사실이 있었다.[30] 빙산사는 현재 없어졌지만, 고운사를 제치고 의성군의 대표 사찰로 지정될 정도였다면, 고운사 못지않은 대찰이었고, 그렇다면 한 지역에 두개의 조계종 대찰이 있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적어도 고운사는 조계종 소속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화엄종찰인 부석사가 쇠퇴함에 따라 인근 14군의 사찰을 관할하는 대찰이 되었다"[31]는 표현으로 미루어, 화엄종 부석사와 경쟁적인 관계에

30) 太宗實錄, 七年.
31) 吳致昇, <孤雲寺事蹟碑>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화엄종 사찰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4대 종파였던 화엄 법상 천태 조계종[32] 가운데 법상종이나 천태종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극락+명부 신앙은 법상종의 근본신앙이어서 고려시대 고운사는 법상종의 아미타 신앙계 사찰이었다고 추정해도 무리가 없다.

아미타 신앙계통 사찰의 건축구성에서는 "영역성"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취급되고 있다.[33] 이 종파의 신앙적 핵심인 極樂淨土思想은 건축적으로 領域 또는 群集으로 형상화된다는 추론이다. 앞서 밝힌대로 고운사는 극락전 - 대웅전 - 석탑의 3중심 체제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창건 당시부터 그러했는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극락전의 北院과 석탑의 南院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三院이던 兩院이던 지형의 규모에 과다할 정도로 영역을 나누었던 구성은 아미타계 사찰의 보편적인 방법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東釋迦 西彌陀의 극락정토설 역시 고운사에 구현되어 있다고 보인다. 3층석탑은 석가모니의 육신을 뜻하는 석가탑으로, 비록 남쪽에 있지만 이를 중심영역인 극락전 일곽과 격리해 설치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3층석탑 일대는 석가모니의 사바세계이며 극락전 일곽은 아미타의 극락세계를 형상화한 구성으로 東釋迦 西彌陀의 所說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34]

아미타계 사찰의 중요한 불전으로 명부전을 들 수 있다. 극락이 내세의 천국이라면, 명부는 내세의 지옥이기 때문이다. 극락전은 극락에 갈 수 있도록 (極樂往生) 기원하는 불전이고, 명부전은 지옥에서 구제되도록 (冥府濟度) 기원하는 곳이다. 서로 상대되는 전각이므로 명부전이 극락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교리적 원리이다. 고운사의 경우 1670년 명부전을 창건할 때, 기존의 극락전 영역과는 격리된 계곡 위쪽에 자리를 잡고, 영역의 집합적 방법도 극락전 일곽과는 차이가 나는 散開型의 수법을 취했다.

32) 허흥식, 高麗時代 佛敎硏究, 일조각, 1986, 201쪽.

고운사의 전체적인 집합적 구성은 3개의 봉우리 (후에 4개)에 대응하여 3院의 군집영역을 설정하였고, 후에 명부전 일곽을 추가하였다. 또한 전체적 집합법은 아미타 신앙의 기본적 교리를 바탕으로 극락정토 신앙의 소설들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교리적 차원의 집합적 원리와 지형적 차원의 집합원리가 서로 엇물리면서 구성된 결과임을 말해준다.

4-2. 群集의 次元 : 南北院의 構成

4-2-1. 兩院制의 구성

고운사는 급경사의 산과 작은 계곡을 가운데로 하여 남쪽과 북쪽, 두 곳에 터를 잡았다. 1724년의 기록에 따르면 북쪽에는 극락전 일곽이, 남쪽에는 대웅전 일곽이 구성되어 각각 北院과 南院을 이루었다. 이후 北院은 명부전과 연수전 일곽이 추가됨으로써 확장되었지만, 南院은 부수 전각들이 철거되면서 모니전 일곽으로 축소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었다.

아미타계 사찰에서 극락전 외에 또 다른 중심불전이 들어설 경우, 이와 같이 독립된 일곽을 이루는 兩院制의 방법은 종종 채용된다. 대표적으로 해남 大興寺와 대구 桐華寺의 예를 들 수 있다. 대흥사의 옛 기록에 의하면,[35] 계곡을 사이로 北院에 대웅전과 나한전의 일곽을, 南院에 극락전과 지장전 일곽을 구성하였다 한다.[36] 비록 남북은 바뀌었지만, 양원 사이의 거리나 대응방법과 전각구성이 고운사의 경우와 너무나 유사하다. 동화사 역시 계곡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극락전 일곽을,

33) 김봉렬, 앞 논문, 84쪽.

34) 김봉렬, 極樂信仰과 淨土系 寺刹의 伽藍構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4호, 1988.8, 67쪽. 석탑 중심의 사바세계와 건물 중심의 극락정토가 東西로 격리된 구성은 부석사에서도 나타난다. 고운사의 경우 그것이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개념은 자연방위가 아닌 상대적 방위체계였기 때문에, 左(東과 南)는 東으로, 右(西와 北)는 西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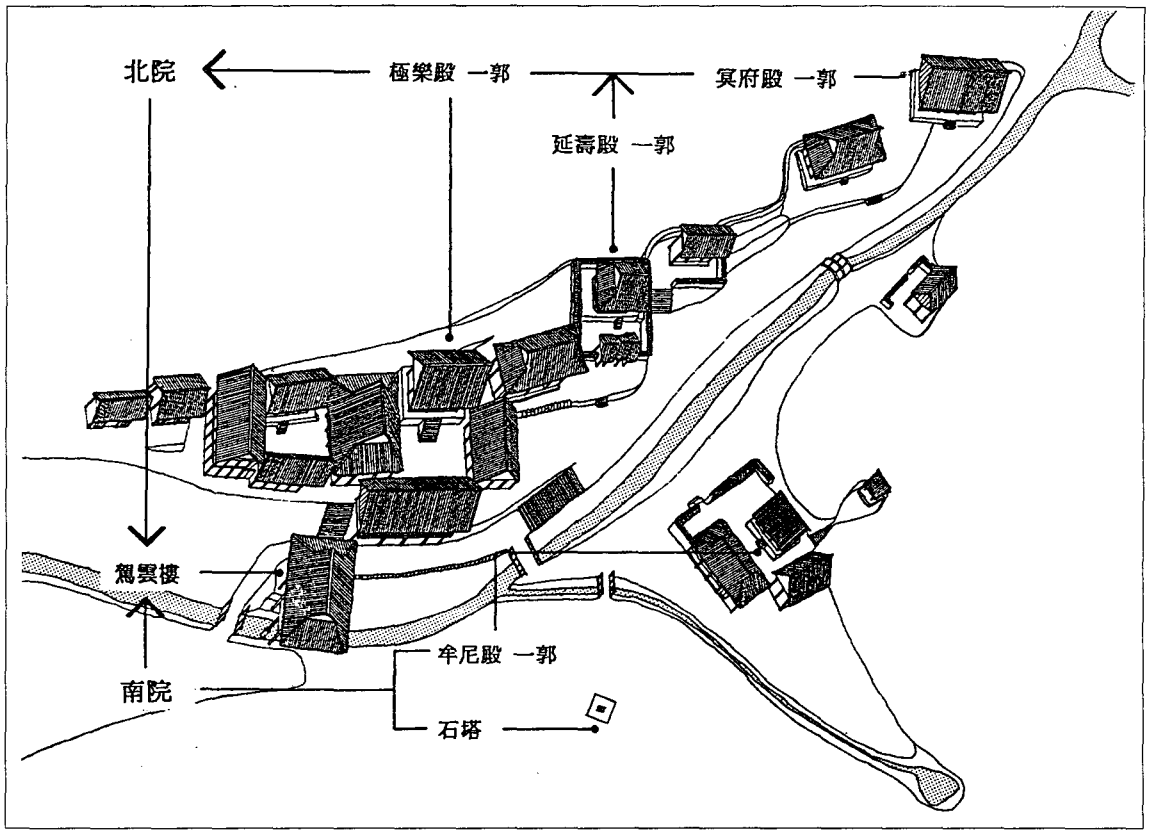


그림 6. 집합의 구조 : 건물군과 군집의 구성

서쪽에 대웅전 일곽을 구성하였다. 세 절 모두 공통적으로 兩院의 경계로 계곡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형 조건의 공통점도 있지만, 極樂渡江의 所說을 상징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2-2. 兩院의 統合體 - 駕雲樓

兩院으로 구성된 고운사 건축을 하나의 전체적인 영역으로 통합시켜 주는 것이 바로 駕雲樓이다. 신라말 최치원이 駕虛樓로 창건했다고 전하는 이 누각은 비록 조선조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가장 유서깊고 중요한 건물로 인식되어 왔다. 16.2m×7.9m, 최고높이 13m, 5×2칸의 대규모 누각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 과장될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가운루의 입지이다. 계곡의 계류 위에 다리와 같이 가로질러 건축된 구성은 다른 사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성이다. 계곡 위에 건축하기 위해 하부에는 매우 긴 기둥들이 사용되었고, 계곡의 가장 깊은 부분에는 기둥을 설치할 수 없어서 생략하고 대신 마루귀틀 아래 두꺼운 2개의 장혀를 대어 보강했다.[37] 구조적인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하필 이 위치에 누각을 세운 의도가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18세기 초 "樓在寺前 複澗合流處 來兩岸而立 層楹其上 洞臨雲碧 楢峙廣明 是爲 仙眞之居"의[38]

35) <竹迷記>과 <大芚寺志>.

36) 현재의 대흥사 역시 남북 兩院의 구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남원의 극락전은 없어지고 대신 千佛殿을 중심으로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37) 현재는 이 부분에 기둥을 세워 상부 누각을 지지하고 있다. 원래부터 덧기둥을 세웠는지, 아니면 후에 보강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38) 申雍翰, <孤雲寺事蹟碑>

기록에서 가운루에 대한 건축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양 계류가 합해지는 곳, 다시 말하면 북원과 남원의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였고, 가운루를 지나야 본격적인 사찰의 경내가 된다. 가운루는 사찰의 전면에 세워 앞으로는 사찰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고, 누각에 서면 아래로는 계류가 흐르고 뒤로는 찬란한 산들과 구름의 바다를 접하는 신선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다.

가운루에 바로 인접해 있는 雨花樓는 極樂殿 一郭을 위한 누각이다. 반면 가운루는 어느 특정한 건물에 부속된 누각이 아니라, 사찰 전체를 위한 누각이다.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영역을 시각적으로, 의미적으로, 공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누각이다. 전면으로 돌출된 가운루의 위치와 파격적인 구성방법과 과장된 스케일은 고운사 전체영역의 통합을 위해 동원된 수단일 것이다.[39]

4-2-3. 北院의 확장

北院은 17세기 후반 명부전 일곽이 창건되고, 18세기 중반 연수전 일곽이 창건됨으로써 계속 확장되어 왔다. 명부전은 조선조 사찰의 매우 중요한 中壇 殿閣이었다. 특히 彌陀系 寺刹에서 명부전은 빠뜨릴 수 없는 전각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40] 극락전 중심의 북원에 건축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앞 서 지적한 대로 極樂과 冥府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來世의 두 세계이다. 따라서 극락전 일곽과 격리된 계곡 안쪽 끝에 위치한 것은 교리에 합당한 배치다. 또한 명부전은 어디까지나 부불전이기 때문에 극락전 일곽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완결된 영역을 확보할 수는 없다. 곧이어 창건된 계곡 맞은 편의 我渠閣은[41] 역대 禪師들의 영정을 봉안한 祖師信仰所이며, 바로 옆에 창건된 八相殿은 석가모니 신앙소로 교리적인 연관이 없다. 또한 비록 이들이 하나의 일곽을 이루고는 있으나 세건물이 계류를 따라 나열된, 매우 독립적인 관계를 이루었다.

願堂 승격을 위한 延壽殿은 당시로서 寺運이 걸린 매우 중요한 건물이었다. 따라서 연수전의 입지도 사찰의 중심에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원보다 위계가 높은 北院에 위치해야 했으나, 이미 극락전과 명부전 일곽이 꽉 들어찬 상태에서 가능한 곳은 오직 두 건물군 사이였을 것이다. 이 위치는 자칫하면 어느 한쪽의 건물군에 편입될 수 있는 애매한 곳이기 때문에, 연수전 일곽은 매우 폐쇄적이고 독자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방에 담장을 두르고 솟을대문을 세워서, 이곳이 사찰의 다른 영역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장소임을 부각시켜야 했다.

이리하여 계곡의 아래쪽부터 극락전 일곽 - 연수전 일곽 - 명부전 일곽이 완성되었고 그들 사이에 爐殿[42] 건물들이 삽입된다. 급한 뒤산과 깊은 계곡 사이의 좁은 터에 건물들을 확장하려면, 모든 건물이 병렬될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은 계곡을 따라 조금씩 밀려들어간 일련의 건물열을 형성하였다.

4-2-4. 南院의 축소

대웅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남원은 1836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곧이어 모니전 일곽이 재건되었지만, 이전에 비해 매우 축소된 상태였다. 소실전의 모습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의존해 본다면, 대웅전과 관음전 그리고 이에 딸린 승방 3-4채가 있었음은 확실하다. 1836년 재건된 일곽

39) 고운사와 비슷한 구조의 대흥사의 경우는 南北院을 다시 하나의 영역으로 묶기 위해 兩院의 교차점에 비교적 커다란 천왕문을 세웠다. 그러나 그 통합적 효과는 고운사 가운루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

40) 김봉렬의 앞 논문에 조사된 순수 미타계 사찰 11개소 가운데, 명부전을 부불전으로 하는 경우가 8개소에 이른다.

41) 西山聖師行蹟, <表忠祠寶藏錄>, 31쪽. 서산대사의 臨終法語로 "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가 전해온다. 我渠閣의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42) 爐殿이란 주요한 佛殿을 관장하는 원로급 승려가 거처하는 건물로, 각 불전에서 가까운 곳에 짓는다.

은 모니전과 그 앞의 고금당, 그리고 옆의 초라한 승방으로 모두 3채로 축소되었고, 건물의 규모도 작아진 것 같다. 1884년 모니전 뒤 산비탈에 山靈閣이 건립되었지만, 단칸의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했다. 조선 중기까지 兩院制로 운영되던 고운사는 北院이 확장되고 南院이 축소되어 점차 북원 중심의 사찰로 변모되었다. 1992년 모니전 일곽을 철거하고 대규모 대웅전을 신축하여 외형상 사찰의 중심이 이곳으로 옮겨졌지만, 실질적인 공간의 기능과 구성 면에서 여전히 북원 일대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4-3. 4 建物群의 集合類型

198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면, 고운사에는 극락전 - 모니전 - 명부전 - 연수전 일곽의 4건물군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구성방식을 취하여, 각 건물군이 차별화 위계화될 수 있었다.

極樂殿 一郭은 전형적인 四棟中庭型의 방식을 취했다. 극락전과 그 앞의 우화루, 좌측에 낙서헌(종무소), 우측에 적묵당 (승방) 4 건물이 에워싸서 가운데 빈 마당을 형성한다. 우화루의 아래층에는 樓下出入 할 수 있었던 계단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우화루가 계곡에 바싹 면해 있어서 전면으로의 출입은 어색했을 것이다. 현재는 가운루 앞을 거쳐 우화루 옆을 돌아 일곽으로 출입할 수 있다. 루각이나 승방의 규모에 비해 극락전은 이례적으로 작은 규모의 법당이다. 또 건물 규모에 비해 기단은 매우 높게 구축하였다. 이는 중심건물로서의 극락전의 지붕을 다른 건물보다 높게하여 중심성을 얻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따라서 건물 자체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佛殿 - 僧房 - 樓閣의 순으로 위계화 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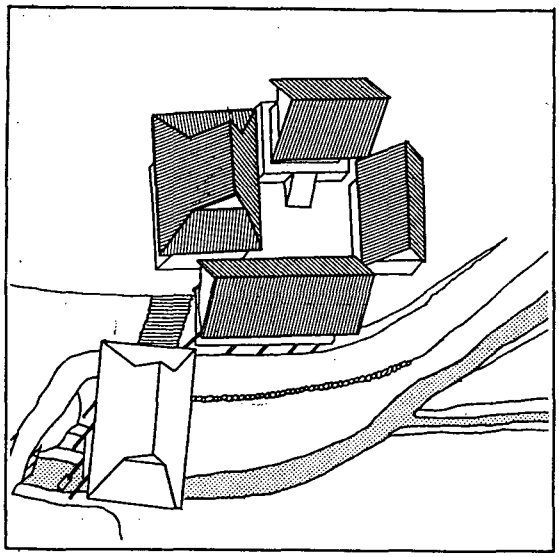
牟尼殿 一郭은 庵子型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일곽을 이루는 3건물의 중심 건물이 불전인 모니전이 아니라 승방인 고금당이기 때문이다. 고금당은 건물의 규모가 모니전의 두배에 가깝고, 모니전 전면에 위치하여 외부에서는 모니전을 인식할 수 없다. 主佛殿 앞에 누각을 세우는 통상적인 방법과는 달리, 고금당은 승려들의 거처용으로 쓰였다. 단지 승방 전면에 반층 높이의 퇴마루를 달아서 얼핏 보면 누각과 같이 보이도록 형태적으로 고려하였다. 고금당과 모니전 사이는 매우 좁아서, 마당이라기 보다는 넓은 길과 같은 외부공간을 형성하였다. 이 관계 역시 고금당이 모니전 보다 위계가 높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승방에 불전이 딸린 구성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庵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冥府殿 一郭은 명부전, 팔상전[43], 아거각 3 건물이 散在型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말한대로 이 건물들은 서로 다른 신앙체계에 속해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밀접한 것은 아니었다.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명부전 뿐이고 팔상전의 규모와 형상을 알 수는 없으나, 명부전은 규모면에서 극락전이나 모니전보다 커서, 부불전으로는 대규모이다. 이는 명부전 내부의 의례와도 관계가 있지만,[44] 팔상전 등 다른 전각과 어울어져 한 일곽을 이루는 속에서 명부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설정으로도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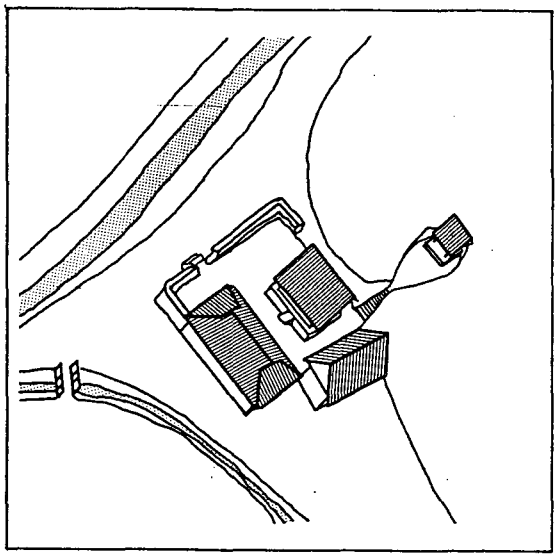
延壽殿 一郭은 유교 건축의 형식인 祠堂型의 구성을 취한다. 사당은 위대한 인물이나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하는 곳이며, 先賢崇拜를 핵심적 의례로 삼는 최고의 건축형식으로 취급되었다. 제왕의 萬壽無疆을 축원하는 기능으로 願堂 승격의 寺運을 걸고 있는 건물이 당대 최고의 건축형식을 취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조선후기에 조성된 다른 사찰의 원당들도 대부분 유교적 사당형식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당은 사방에 담장을 두른 독립된 영역 안의 중심에 세워지고, 정면에는 三門을 설치해서 禮를 갖춘다. 예로 法住寺에 설치된 宣喜宮 願堂을 들 수 있다.[45] 이 일곽만 떼놓고 본다면, 서원 등에 설치된 유교

43) 팔상전은 20세기 초에 이미 없어졌고, 현재는 그 위치에 명부전의 爐殿인 蓮池菴이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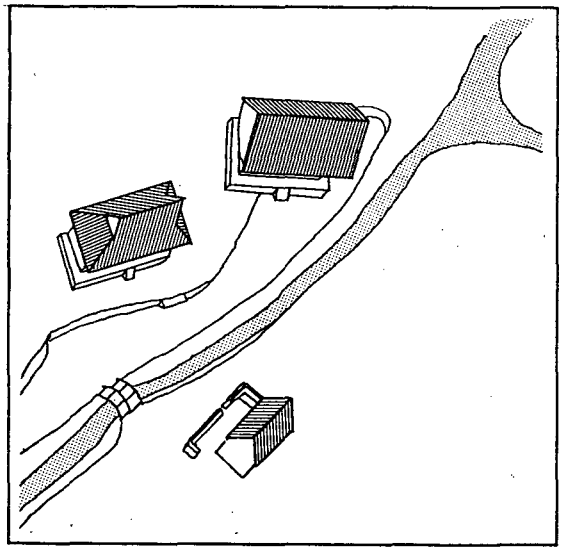
44) 김봉렬, 敎儀的 解釋을 통해 본 朝鮮寺刹의 殿閣構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4호, 1988.8., 34쪽. 명부전에는 冥府를 관장하는 十大王座像과 그 附屬眷屬像들을 안치해야 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면적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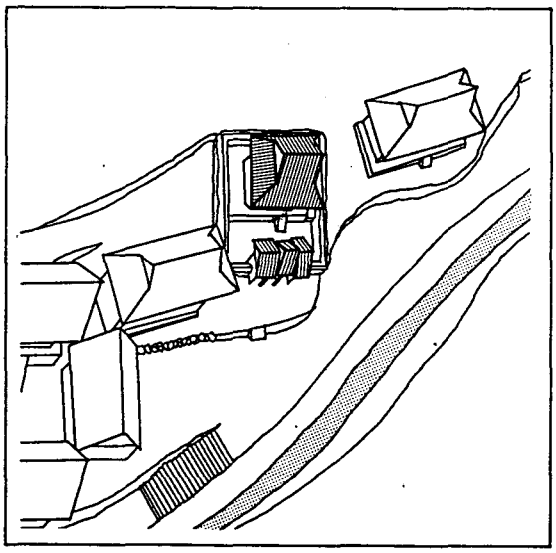
極樂殿 一郭



牟尼殿 一郭



冥府殿 一郭



延壽殿 一郭

그림 7. 건물군의 집합유형

사당과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45) 김봉렬外, 법주사, 대원사, 1994, 73쪽. 이 일곽은 1765년경 영조의 후궁인 영빈 이씨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유교의 사당 건물 역시 일정한 형식을 갖는다. 보통 3칸의 龕室型으로 구성하여 앞퇴를 붙이고, 맞배지붕에 풍판을 단다. 그러나 고운사 연수전 건물은 매우 독특한 형식으로 계획되었다.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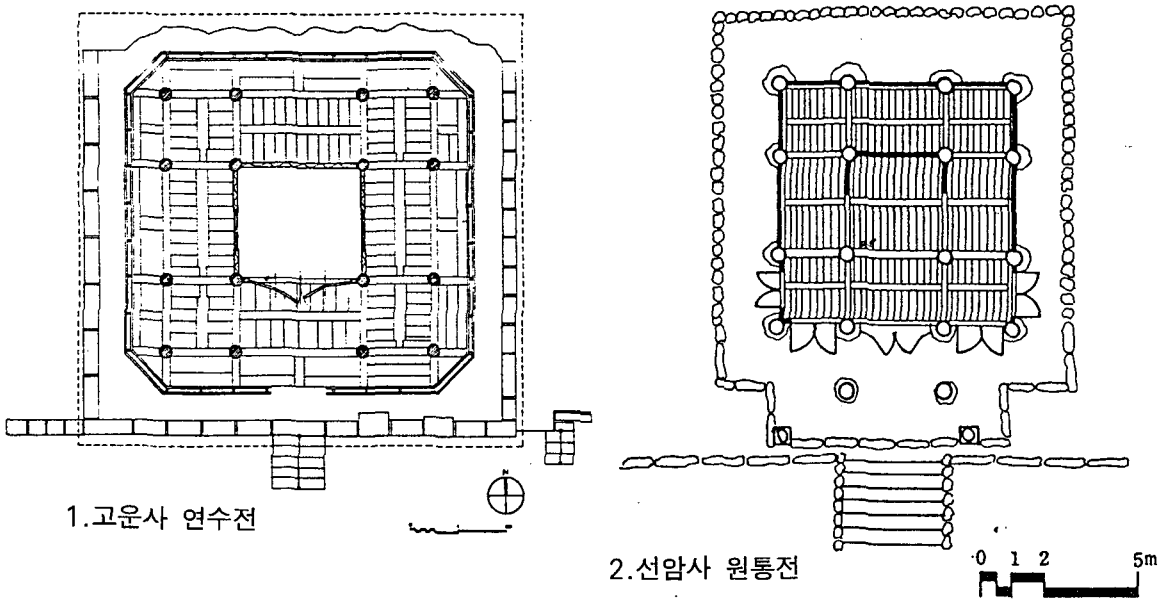


그림 8. 원당건물의 평면도

건물을 3x3칸으로 구성하고, 가운데 1칸을 방으로 하고, 주변 칸은 모두 개방된 마루칸이다. 이러한 형식과 유사한 원당건물은 仙巖寺 圓通殿에서 찾아볼 수 있다.[46] <그림-8>. 선암사 원통전의 몸체는 3x3칸으로 구성되며, 가운데 칸에 불단을 조성하고 주변칸 모두는 회랑과 같은 마루칸이다. 비록 4외벽이 벽과 문으로 막혀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의도는 고운사 연수전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현재의 연수전은 1902년 재창건한 건물로서 간략화된 구조기법등 시대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건물의 공간구성 역시 선암사의 경우에 비해 더욱 개방화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칸의 폐쇄도를 높여 內陣으로 만들고, 주변의 개방된 칸들을 外陣으로 하는 구성은 동일하다.

46) 남도불교문화연구회, 仙巖寺, 승주군, 1992, 71쪽. 이 건물에서 正祖대왕의 후사를 기도하여 純祖의 출생을 볼 수 있었고, 1824년 순조임금이 이를 기념하여 친필 현판을 하사하였다. 이때 원통전이 대대적으로 중수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願堂으로 승격됨을 의미한다. 특히 전면에 설치된 1칸의 돌출된 캐노피는 왕실에 관련된 건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례용 건축요소이다.

5. 結論

고운사에 현전하는 각종 기록을 재구성하여 가능한 범위의 造營史를 復元하고, 현재의 건축 구성을 대입하여 고찰한 결과, 17세기 이후 300여년간, 길게는 창건 이후 천여년에 걸친 건축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그 변화에는 일정한 질서가 내포되어 있는 바, 아미타 신앙의 교리를 바탕으로 주변 지형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간 건축적 과정이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극락전 일곽의 北院과 대웅전 일곽의 南院으로 두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의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졌다. 北院은 다시 명부전 일곽이 계곡 상류 쪽에 확장되었고, 극락전과 명부전 사이에 왕실원당이 삽입됨으로써 3개의 건물군으로 영역의 완성을 보았다. 南院의 대웅전 일곽은 법화신앙에 관련된 관음전이 부가되어 완성되었으나, 재건 때 축소된 남원은 북원의 확장과 함께 부불전의 위치로 격하되었다. 두개의 院은 기능적 구성적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완결된 독립영역들이며, 이는 다시 대규모의 가운루 건물

로서 통합되는 중층적 집합의 구조를 이루었다.

극락전 - 모니전 - 명부전 - 연수전 등 4개의 建物群은 그 집합의 방식이 서로 독특하여 차별성을 구현하였다. 극락전 일곽은 四棟中庭型 구성의 방법을, 모니전 일곽은 庵子型의 방법을, 명부전 일곽은 散在型을, 연수전 일곽은 유교적 祠堂型의 방법을 취하였다. 이는 각 영역의 교리적 위계와 사찰 내의 기능을 고려한 구성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고운사 건축 구성의 역사는 집합적 질서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건조물의 역사가 아니라 사찰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사의 외재적 조건 속에서, 지형과 교리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것이다. 이것은 곧 집합적 이론의 기초적 틀임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地理와 敎理 - 群集- 建物群 등 몇단계의 집합적 차원에서의 분석은 배치계획과 외부공간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해주는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고운사라는 특정한 사찰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더욱 다양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에 채택한 집합론적 방법을 한국건축 연구 전반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謄雲山孤雲寺事蹟>, 權相老 編, 朝鮮寺刹史料-上
2) <孤雲寺事蹟碑>, 吳致昇 撰, 1918
3) <慶北五本山古今紀要>
4) <孤雲寺事蹟碑>, 申雍翰 撰, 1729
5) <聞韶邑志>
6) <孤雲寺重修記>, 1887
7) <牟尼極樂兩殿佛像改金記>, 1858
8) <冥府殿獻納記>, 1832?
9) <先師涵弘和尙獻上記>, 1880
10) <孤雲寺重創記>, 1842?
11)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硏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9
12) 金奉烈, 敎儀的 解釋을 통해 본 朝鮮寺刹의 殿閣構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8.8.
13) 金奉烈, 極樂信仰과 淨土系 寺刹의 伽藍構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8.8.
14) 徐致祥, 朝鮮王朝 願堂寺刹의 造營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5) 安啓賢, 韓國佛敎史硏究, 同和出版社, 1982
16) 黃善明, 朝鮮朝 宗敎社會史硏究, 一志社, 1985

The Collective Types of Architecture in Temple Gowoon

Kim, Bong-Ryol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A collective theory is tried to analysis on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Temple Gowoon in Gyongbook Province. For this purpose, firstly, the chronicle of construction was composed based on the critical study of the old documents. Secondly, the drawings of existing facilities were made after the field survey. And lastly, the collective theory was be able to extracted from the relation between chronicle and physical composion of the Temple Gowoon.

The whole temple is composed of two territories, northern one and southern, which are divided by the central ravine. Northern territory was enlarged from Gukrakgeon's cluster through Myongboogeon's to Yeonsoogeon's. On the other hand, southern territory was reduced its position and its size from Daewoongeon's cluster, which was one of the main cluster, to Monigeon's, sub one. These processes were the results of the architectural adjustment, that is to say, the dogmatic principles adapted in the topographical environments. The collective forms of cluster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Gukrakgeon's cluster is composed of four buildings which enclose the empty inner court. Monigeon's is similar to the small temple type, Myongboogeon's selects the straggling form, and Yoensoogeon's has the type of Confucian shrine. The various types of clusters were the physical settings to symbolize the religious heirarchy of their buildigs. In the front of temple area, Gawoonloo, which located on the ravine and has a big volume, integrates straggling clusters.